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시급

거의 유흥업소 취업...비행·범죄유혹 빠져 나기도 낮아지는 추세...재교육 시설 절실

서울 YMCA 심포지엄

가출 청소년의 상당수가 유흥업소에 취업하면서 비행이나 범죄의 유혹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어 이들을 보호하거나 재교육할 사회적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가 지난 7일 오후 마련한 '가출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나' 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미성년자인데도 레스토랑·

술집 등 유흥업소에 취직하고 있고 소년원에 보호된 비행 청소년의 60% 이상이 가출자로 밝혀져 가출과 비행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70년대 도시 동경이나 가난이 주요원인이었던 청소년들의 가출동기가 80년대 이후 욕구불만·가정불화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동과 향락업소 등 성인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뀐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나이가 계

속 낮아져 15살의 경우 75년 2.1%에서 90년 7.9%로 늘어난 반면 18살의 경우 75%에서 1.6%로 줄었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수가 75년 6천7백여명에서 90년 1천7백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15살 이상 청소년의 가출이 실제로 줄었다기보다는 이들이 가출 뒤 곧바로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인 것으로 일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시립아동보호소 이영희 소장은 "가출 청소년의 상당수가 양친이



거리마다 넘치는 온갖 향락문화가 자아가 약한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을 부추기고 있다.

모두 살아 있는 정상가정 출신인데다 중산층 이상 생활수준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

서울YMCA 청소년상담실의 한명섭 간사는 "요즘은 가출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일단 유흥업소 등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상습적·반복적으로 가출하는 예가 많아 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 보호의 법규 문제'를 발제한 이석태 변호사는 "기존의 관계법들이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만 금지하고 있을 뿐 고용문제 규정이 없어 업소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최근 입법중인 풍속영업규제법(안)에서도 18살 미만을 대상으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출의 사전 예방 노력과 함께 한번의 충동적 가출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을 사회단체나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경애 기자>